

Cut1

[앞부분의 줄거리] 승상 정을선이 출정한 사이 정렬부인의 모략으로 총렬부인이 옥에 갇히자 시비 금섬이 총렬부인을 피신시키고 자진한다.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는 월매를 문초한다. 전장에서 정을선은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는다.

①(호기심) 금섬이 얼굴을 상하게 한 이유

여기서 금섬의 행동은 (1)총렬부인을 피신시키고, (2)자진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금섬의 얼굴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왜 금섬의 얼굴이 훼손됐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했다면 누가 금섬의 얼굴을 훼손했을까?

만약 금섬이 (1)만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총렬부인을 옥에 갇춘 사람들이 총렬부인을 추격할 것이다. 그래서 금섬은 (2)까지 진행한다. 즉, 자기 얼굴을 훼손한 채 자기가 자결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감옥 안의 시체의 신원을 알 수 없게 되고, 간수들은 총렬부인이 자결한 것이라 생각하고, 총렬부인을 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②(호기심) 왕비가 월매를 문초한 이유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 두 가지의 가설을 검토해보자. 첫 번째 가설은 월매가 간수라는 것이다. '되자'를 통해 왕비가 월매를 문초한 사건이 금섬의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월매가 간수 역할을 하고, 왕비가 자신의 역할(죄수 관리)을 하지 못한 월매를 문초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가설은 금섬의 계책(총렬부인을 피신시키고 자기를 총렬부인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총렬부인을 향한 추격 방지)이 들통나고, 금섬과 친한 월매에게 진짜 총렬부인의 행방을 묻는다는 것이다.

아직 맥락이 나오지 않아 두 가설 중 무엇이 참인지 알 수 없다.

③(Tip) 맥락을 통한 상황 파악

서술 맥락을 고려하면, 호첩의 편지 내용은 앞 부분(총렬부인이 모략에 당해 감옥에 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호기심)왕비와 월매의 정체 + (Tip) 인물의 정체

작중에서 왕비와 월매의 정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독자는 그저 찻찻한 상태로 넘어가야 한다. 이러한 의문은 [Cut2]와 [Cut4]에서 각각 해결된다. 이렇게 등장인물의 정체가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는 찻찻함을 느끼고 글을 읽어가면서 그들의 관계를 확정지어야 한다.

어휘	의미
출정하다	사전적 의미는 전쟁터로 나간다는 뜻이다. 보통 가정소설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부재한 상황에 악인들이 음모를 꾸미는 경우가 많다.
모략	사전적 의미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이다.
자진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다.
문초하다	사전적 의미는 죄를 지은 사람을 심문하다는 뜻이다. 이때 월매가 무언가 죄를 지었고 왕비는 이를 문초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언어감각이 예리한 독자라면, 앞서 문맥에서 일어난 일들이 전부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고려하여, 왕비가 집안의 대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장	전쟁터

Cut2

원수가 대경하여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으시고 인하여 중군장에게 분부하시되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 하고 밤낮 삼 일 만에 득달하니 이때에 왕비의 시비 월매가 종시 토설치 아니하매 매를 많이 맞고 여쭙오되 “어서 바빠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나이다.”

한데 왕비 크게 노하여 목을 베라 할 즈음에 이때 승상이 필마로 달려오다가 월매 죽이려 하는 거동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내려 이를 구호하매 문왈

①(Tip) 맥락을 통한 상황파악 2

원수의 감정반응(대경=놀람) 이전에 나타난 상황은 호첩에게 편지를 받은 사건이다. 또 원수가 중군장에게 집안일이 있어서 간다는 말을 한 점을 고려하면, 원수가 호첩에게 받은 편지의 내용이 총렬부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②(호기심) 왕비가 월매를 문초한 이유 2

월매의 대사 중 “어서 바빠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나이다.”에서 금섬과 월매가 서로 같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Cut1]에서 언급한 두 가지 가설 중 두 번째 가설이 맞는 것을 알 수 있다.

[Cut1]의 두 가설

H1. 월매는 간수고 죄인(총렬부인)을 잘 관리하지 못함에 대한 질책을 당하는 중이다.

H2. 월매는 금섬의 친구고, 금섬의 계획이 실패하여 진짜 총렬부인의 행방에 대해 심문을 받는 중이다.

③(Tip) 시간적 배경의 일치

[Cut1]과 [Cut2]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진다. 하나는 월매와 금섬이 주축이 되는 사건, 다른 하나는 원수가 편지를 받고 복귀하는 사건. 이렇게 서로 다른 사건이 결합되는 양상이 등장한다.

원수가 편지를 받고 중군장에게 말한 뒤, 집으로 복귀한 딱 그 순간이 월매가 왕비에게 죽기 직전인 상황이다.

④(잡소리) 정을선의 프로의식

정을선은 집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편지를 받자마자 집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는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임을 알 수 있다. 혹, 정을선이 담당하던 일이 거의 끝나지 않았느냐고 항변할 수 있지만,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현대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후반부 황제에게 편지를 쓰는 부분에도 이에 대한 반성이 있는 것을 보아 정을선도 스스로 뭔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하다.

어휘	의미
원수	고전 소설에서 군대를 통솔하는 최고 지위의 장군이다. 오늘 날의 쓰리스타~포스타 정도로 생각하자.
중군장	고전 소설에서 총사령관 바로 아래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간부이다. 오늘날의 원스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토설치 않다	‘토설하다’의 사전적 정의는 숨기고 있던 사실을 겉으로 다 드러내어 말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때, 월매가 고문을 당하며 총렬부인의 문초에 끝까지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을 보아, 월매가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필마로 달리다	이는 한 필의 말을 타고 달리다는 뜻으로 보통 ‘혼자서 아주 급하게’ 가는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한다. 이 지문 속에서의 정을선은 대원수이다. 보통 대원수들은 많은 군사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움직인다. 그러나 집안에서 큰일이 났다는 소식에 격식을 다 버리고 헐레벌떡 뛰어온 상황을 ‘필마로 달리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 표현 속에서 ‘다급함’이라는 정을선의 심리까지 추론할 수 있다.

Cut3

“총렬부인은 어디 계시나?”

월매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보고 방성통곡 왈

“승상은 바빠 총렬부인을 살리소서.”

한데 승상이 급히 문왈

“어디 계시나?”

한데 월매 울며 왈

“소인이 견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리까?”

한데 급히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

①(호기심) 월매가 견지 못한다고 한 이유

월매는 총렬부인의 위치를 알고 있지만, 직접 말해주지 않는다. 예리한 독자라면, ‘아니 그냥 어딘지 말로 해주면 되지 않나?’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다. 생각건대, 바로 아래에서 제시하는 정을선의 성격을 고려하면, 자기가 총렬부인의 위치를 알려준 경우, 정을선은 자신을 버리고 바로 총렬부인의 위치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는 목이 마저 썰릴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기에 정을선에게 총렬부인의 위치를 곧바로 언급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서 말해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잡소리) 정을선 인격장애설

정을선은 전쟁에서 호첩의 편지를 받고 돌아오자마자 왕비가 월매를 처형하려는 모습을 본다. 이때, 정을선이 월매에게 건 첫 번째 말이 “내 와이프 어딴냐?”이다. 상식적으로 죽다 살아난 사람에게 하는 말로는 부적절하다. 물론 평가원 지문에선 편집이 들어가기에 다른 판본에선 다를 수 있고, 소설에선 서사의 극대화를 위해 자잘한 말들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저 해석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문에 적힌 모습만 보면, 자기 와이프 외에는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어휘	의미
방성통곡	사전적 의미는 큰 소리로 몹시 곡을 하는 것이다. ‘대성통곡’과 동의어이다. 이 문맥에서는 월매가 승상을 보고 크게 운다는 것이다. 아마 자기가 모시는 총렬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온 것에 대한 생존의 안도감 정도가 아닐까 싶다.

Cut4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거늘 아기는 잠을 깊이 들었는지라. 승상이 통곡 왈

“부인은 눈을 떠 나를 보소서.”

한데 부인이 눈을 떠보니 승상이 왔거늘 정신 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구년지수의 해갈고 칠년대한의 빗발같이 바라더니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리까. 승상은 나의 누명을 씻겨 주소서.”

하며 인사를 모르는지라.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지라. 승상이 아기를 안아 월매를 주고 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할새, 왕비전에 뵈온대 왕비 못내 반기시며 사연을 날날이 이르시되 승상 왈

㉠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 마옵소서.”

하며 왈

“처음에 그놈이 총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이까?”

왕비 왈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하신타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벌써 제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

①(Tip) 등장인물의 정보량

현재 상황은 정을선이 부인을 구출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왕비전으로 간 상황이다. 여기서 왕비는 정을선에게 그간의 일을 언급한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정을선은 ㉠과 같이 말한다.

이는 현재 시점 왕비가 아는 정보와 정을선이 아는 정보가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둘 다 미완의 지식으로 사건의 진상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②(Tip) 서술자의 개입

여기서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는 서술자의 개입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서술자의 개입이 등장하면, 크게 체크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③(호기심) ‘그놈’의 정체

정을선의 발화(“처음에 그놈이 총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이까?”)를 통해, 총렬부인의 누명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있다.

총렬부인이 누명을 썼고 이로 인해 투옥됐다는 사실은 [Cut1]~[Cut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정을선의 발화를 통해 총렬부인이 바람을 폈다는 누명을 썼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④(Tip) 인물 연결

맥락상 ‘복록’이 ‘왕비의 사촌 오라비’임을, 왕비가 정을선의 어머니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어휘	의미
구년지수의 해	<p>구년지수의 해와 칠년대한의 빗발은 모두 간절한 기다림과 절박함을 비유하는 중국고사이다. 자세한 고사는 알 필요가 없고, 글자의 의미 분석만 해봐도 충분하다.</p> <p>구년지수는 9년 동안의 물난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가 떠서 물을 말려주면 문제가 사라진다. 따라서 구년지수의 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를 의미하며 당연히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던 것을 나타낸다.</p>
칠년대한의 빗발	<p>칠년대한은 7년 동안 이어진 지독한 가뭄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가 오면 문제가 사라진다. 역시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p> <p>더하여 ‘之’를 좀 알아두자. 뜻은 많지만, ‘~의’로 가장 많이 쓰인다. 여기서도 그렇다.</p>
옥석을 구별하다	<p>일반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는 ‘총렬부인의 누명에 대한 진상규명’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p>
르새	<p>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p> <div data-bbox="320 613 1528 685"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예스러운 표현으로) 이미 사실로 된 일이나 진행 중인 일을 들어 뒤 절에 나타난 일의 원인이나 이유, 근거, 전제 따위로 쓰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p> </div> <p>너무 어려우면 활용 맥락을 보자.</p> <div data-bbox="320 813 1528 84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할새, 왕비전에 뵈온대</p> </div> <p>여기서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하다’는 문맥상 ‘총렬부인의 누명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자리를 마련함’ 정도로 볼 수 있다. ‘르새’의 사전적 의미와 이 다음 부분에서 정을선이 왕비전에 가서 누명을 씌운 범인을 찾는 것을 보아, 여기서 ‘르새’는 ‘~하기 위해’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p> <p>즉,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p> <div data-bbox="320 1133 1528 116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하기 위해, 왕비전에 뵈온대</p> </div>

Cut5

하릴없이 옥졸을 잡아들여 엄히 문왈

“너희는 어찌 총렬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아뢰라.”

하신대 옥졸이 급히 여쭙오되

“얼굴이 상하여 아모란 줄 모르오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 등 소견에 총렬부인이 천하일색이라 하더니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하올 제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이 이를 듣고 문기에 자세히 이르고 부디 다른 데 가서 이 말 말라 당부하옵더니,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가 하나이다.”

한데...

①(Tip) 상황파악

현재 정을선은 모친에게서 사건의 실마리를 얻었지만 그 당사자(복록)이 죽어버렸다. 따라서 다시 수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때 어쩔 수 없이 총렬부인을 가뒀던 옥졸을 잡아 들어서 문초한다. 뜻밖에도 옥졸의 말을 통해 힌트를 얻는다.

②(호기심) 정을선이 옥졸을 심문하는 이유

유일한 실마리였던 복록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정을선은 하릴없이 옥졸을 잡아들인다. 이때, 그냥 잡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름의 이유가 존재해서 잡아들였다. 우선 금섬의 계획은 실패했다. 이는 왕비로 하여금 진짜 총렬부인을 추적하게 만들었다. 이때 대체 어떤 방식으로 실패했을까? 정을선이 주목한 지점이 바로 그것이다. 정을선이 사건의 내막을 어느 정도 알고 나니 ‘금섬의 계획이 실패한 지점’이 궁금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옥졸을 부른 것이다.

②(Tip) 긴 발화 + 후건부정식

요약해보자면 옥졸의 말은 다음과 같다.

감옥 안의 시체가 얼굴이 박살나서 못알아봤는데, 손이 거칠었다. 만약 귀부인이라면 손은 거칠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감옥 안의 시체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긴 발화가 등장하면 독자는 항상 짧게 요약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라는 의문을 가지고 요약해보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더하여 옥졸은 꽤나 논리적인 화법을 구사한다.

1. 총렬부인은 천하일색이며 귀한 신분이라 손이 매우 고울 것이다.
2. 감옥 안의 시체는 손이 곱지 않다.
3. 따라서 감옥 안의 시체는 총렬부인이 아니다.

이전 [깊은 생각]에서 ‘후건 부정식’을 배운 적이 있다면 이를 적용해보자. 옥졸이 꽤나 논리적임을 알 수 있다.

어휘	의미
옥졸	감옥에서 죄수를 지키던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교도관이나 간수를 말한다.
천하일색	하늘 아래 가장 이쁜 사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장원영이나 안유진 정도가 아닐까.

Cut6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 문 왈

“이 말을 듣고 네게 국문하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는 소리가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 하더라. 이때에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는지라. 금연이 하릴없이 바로 아뢰나니라 하고 정렬부인 하던 말이며 제가 남복을 하고 총렬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이며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웠사오매 총렬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시매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침소로 마지못하여 가시매 복록이 왕비께 참소하던 연유를 낱낱이 아뢴대 왕비 곁에 있다가 양천통곡하시며 왈

“내 밝지 못하여 악녀의 꾀에 빠져 총렬부인을 죽이려 하였나니 무슨 면목으로 총렬부인을 보리오.”

하시며 자결코자 하거늘 승상이 붙들고 울며 왈

“모친이 너무 과도히 하시면 소자가 먼저 죽으려 하나이다.”

왕비 금침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더라.

①(Tip) 등장인물 희화화

<보기>에도 등장하지만,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에 똥을 찐다는 사실은 정렬부인을 희화화하는 것이다. 즉 웃기게 만드는 것이다.

②(Tip) 완벽한 진상규명

금연의 발화에서 완벽한 진상 규명이 이뤄진다.

동시에 이 작품의 구성도 눈여겨볼만 하다.

이 작품은 정을선이 만나는 등장인물마다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며 사건이 진행된다. 아래는 정을선이 만난 인물과 그로부터 얻은 정보이다.

등장 인물	호칭	일매	왕비	옥졸	금연
얻은 정보	총렬부인에게 큰일 난 사실	총렬부인의 행방	총렬부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이 사실을 왕비에게 알린 사람(복록)	감옥 안의 시체가 총렬부인이 아님을 판단한 이유와 그 사실을 밖에서 알린 사람(금연)	총렬부인에게 씌워진 누명의 상대방(금연) 및 누명을 씌운 사건의 전모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정보가 점점 많아져서 결국 사건의 진상에 근접한다는 것이다. 정말 편집을 잘했다.

어휘	의미
국문하다	중죄인을 신문하는 것이다. 참고로 ‘심문’, ‘신문’의 의미차이를 알 필요는 없다. 독서 지문에서 형사소송법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고전소설을 읽을 때 이런 엄밀한 구별은 필요 없다.
남복을 하다	남자의 옷을 입다
구병하다	병든 사람을 간호하고 치료하다.
강권하다	강하게 권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총렬부인이 꾀병을 앓는 정렬부인을 간호하느라 쉬지 못하자, 정렬부인이 총렬부인에게 “니 방 가서 자라”라고 강하게 권하는 것이다.
참소하다	남을 해치려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위사람에게 고자질하다. 여기서는 복록이 왕비에게 ‘총렬부인이 바람폈다’고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의미한다.
양천통곡	하늘을 우러러보며 목놓아 크게 운다는 것이다. 대성통곡, 방성통곡 등의 용어와 구별할 필요 없다. 똑같은 말이다.
금침	이불과 베개

Cut7

승상이 정렬부인을

결박하여 땅에 꿰리고 크게 노하여 왈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총렬부인을 해코자하느냐. 어찌

일시를 살리리오. 내 임의로는 죽이고 싶으나 황상께 아뢰고

죽게 하리라.”

하고상소하니 그 글에 하였으되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선은 돈수백배하고 아뢰나니 신이 서용을 처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 할 때,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맡기웁고 필마로 올라와 본즉, 정렬부인이 이러이러한 변을 일으켰사오니 세상에 이러하온 일이 있사오닛가.”

하고 금연이 흉계를 꾸민 일과 월매가 당하던 고초를 낱낱이 아뢰었다.

①(호기심) 정을선이 굳이 황상께 보고하는 이유

일반적인 가정소설에서는 가정의 문제를 바로 해결한다. 그러나 정을선전에서는 황제에게 미리 보고를 하고 처결을 기다린다. 이는 작품 내부에서만 답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작중 정을선의 발화(“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총렬부인을 해코자하느냐”)에서 정렬부인이 없을 것이 많은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나 이도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전문을 참고하면, 정을선은 제후국의 왕자이다. 즉, 황제가 제국을 통치하고 그 제국의 소속인 작은 나라의 왕자이다. 더하여 정을선의 첫째 와이프인 정렬부인 역시 제후국의 공주이다.(작 중에선 초왕의 딸임) 따라서 정을선의 입장에선 같은 체급의 여자를 함부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집에서 꼬장 좀 부렸다고 죽이기엔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정을선은 전쟁 중에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배경이 짱짱한 와이프까지 죽여버렸다간 황제 눈 밖에 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바로 속삭하지 못하고 황제에게 보고한 뒤 처분을 맡기는 것이다.

어휘	의미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선이 가진 세 가지 지위를 나열한 것이다. 각 지위가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몰라도 된다. 그저 정을선이 자신의 직함을 나열하여, ‘아이고 황제님 저는 나라를 위해 열심히 몸바치는 충신임다’ 라는 것을 어필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용	서쪽에 있는 오랑캐들이다. 중국 본토놈들은 지들 빼곤 전부 오랑캐라고 한다. 따라서 이를 배경으로 하는 고전 소설에도 가끔 오랑캐들이 주적으로 나온다. ‘남만’, ‘북적’, ‘서용’ 등이 그러하다.
진무하다	(난리나 소동을) 진압하여 가라앉히고, 백성들을 어루만져 안심시킨다.
흉계	흉악하고 못된 꾀
고초	괴로운 고통